

종교개혁과 성령

박창건 교수

《 목 차 》

1. 서론
2. 로마 카톨릭교회의 성령이해
3. 광신자들의 성령이해
 - (1) 재세례파
 - (2) 신령주의자들
 - (3) 광신자들
 - (4) 反 삼위일체론자들
4. 종교개혁과 성령이해
5. 결어

1. 서론

이른바 '성령운동'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교회성장의 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美名下에 사이비 종교와 有害한 기도원들의 난립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것은 기독교가 타락하고 교회가 제구실을 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음을 보아왔다. 성령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간다고 자부하는 한국교회의 정황속에서 M.Luther의 종교개혁 시대에 성령에 대한 여러가지 이해가 종교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자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16세기 西歐 기독교에 있어서 성령의 이해는 대개 신약성서에서 멀리 떨어진 이해를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성령론은 대부분 삼위일체의 관계에서, 즉 '본질의 일치' '차이의 관계' '기원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되었었다.¹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해되었을 뿐 바울에 있어서처럼 신앙공동체의 생활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지 않았으며, 누가의 선교적 측면에서 이해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성령이해는 하나의 큰 발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東部戰線(右翼)과 西部戰線(左翼)이라는 두개의 전선을 상대로 싸워야 했던 Luther에게 있어서는 종교개혁을 종교개혁답게 이끌어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² 동부전선에는 이미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로마교회가 있었고, 서부전선에는 광신자들이 있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은 로마교회의 전통적 성령론과 광신자들의 성령이해와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익에는 교권제도적으로 定義된 로마의 제도적 교회가 있었고, 좌익에는 신앙고백적인 표현으로 신령주의적-광신적 신앙공동체가 있었다. 종교개혁의 교회는 이 중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Luther 신학의 전통에 있어서 이렇게 장소화하는 일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Luther는 1517년(95개조 테제)에서 1521년(Worms)까지 우익 로마교회에 대하여 戰線을 세워야 했고, 1525년에는 좌익에 대한 戰線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운동 전체는 이 두 戰線에서의 투쟁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Luther는 두 戰線에 대한 10여년간의 투쟁 이후에 1533년 갈라디아서 주석의 머리말에서 戰線의 한편에는 자기편인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다른 편에는 '교황과 재세례파 사람들'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동

-
1. 영이 '아버지에게서 오는가' 아니면 '아들에게서 오는가'라는 Filioque 논쟁은 현재 세계교회 연합운동에서 신학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
 2. 해석의 圖式으로서 이념적인 술어인 '右翼-左翼', 혹은 군사학적인 용어인 '東部戰線-西部戰線'이라는 표현은 교파를 조직적으로 정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부전선과 서부전선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신학적인 戰線이 있다는 역사적 발전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교황과 재세례파가 피할 수 없는 적대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교훈에 있어서 이 양자가 일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Luther에게 있어서 교황은 적그리스도였고, 재세례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적으로 생각되었다.³

이제 우리는 우익(제도적 로마교회)에 있어서 영이해와 좌익(광신자들)에 있어서 영이해를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종교개혁자의 영이해를 비교해 보기로 하자.

2. 로마 카톨릭교회의 성령이해

로마 카톨릭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영적 교회와는 달리 법적-제도적 교회를 내세웠다. 그 결과는 정신적, 내적, 영적 차원을 등한히 한 반면, 可視的, 외적, 사회적, 제도적 요소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 그들은 성서적, 역사적, 사회학적 측면에서 교회를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⁴ '성서적'이란 베드로가 예수의 후계자라는 것이고, '역사적'이란 베드로의 권위와 교황들의 계승을 타당화 하는 점이고, '사회학적'이란 잘 조직된 사회에 속해 있는 교회를 말한다. 이런 이해는 계급제도적으로 구성된 교회로서 소수의 인물들이 교회를 치리하고 제일 위에 교황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해를 통해서 교황은 교회안에서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교황은 제도적 교회의 상징으로서 성령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황권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초자연적인 것이다. 또 교황이 하는 일은 모두 성령의 활동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敎皇職이 성령의 활동으로 이해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교황은 구조적, 영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

3. Fast H., *Der linke Flügel der Reformation*, Bremen 1962, X III 이하

4. Mondin B., *Der Heilige Geist als Legitimation des Paspntames*, Rom 1977, 21쪽 이하

에게 육체의 기능과 정신적 기능이 있듯이, 교회는 구조적 혹은 가시적인 차원과 영적 혹은 불가시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보면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헌법(교권제도)이고, 영적 차원에서 보면 성령이다. 구조적 차원은 영적 차원없이 존재할 수 없고, 영적 차원은 구조적 차원없이 존재할 수 없다. 교회의 유기적인 구조를 말하는 것인데 성령이 교회의 모든 유기체들을 규정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황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우두머리이고, 그의 기능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일어난다고 이해되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전통은 無誤하고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영속적 교회의 無誤성을 보증하는 사람은 교황자신이다. 따라서 이 無誤性도 교황의 은사에 속한다.⁵ 이외에도 교황과 성령의 관계에 대한 것이 많이 있겠으나 여기서 그것을 다 말할 수는 없다. 여하튼 이런 성령이해에 대하여 Luther는 처절하게 싸워야 했던 것이다.

3. 광신자들의 성령이해

여기서 말하는 ‘광신자들’은 4가지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① 재세례파, ② 신령주의자들, ③ 광신자들, ④ 反삼위일체론자들이다. 이들은 ‘종교개혁의 좌익’ 혹은 ‘종교개혁의 어긋자식’ ‘지엽적인 교회물결’이라고 불린다. 최근의 교회역사가들은 좋은 표현을 써서 ‘과격한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개혁의 좌익’이란 교회밖에 머물러서 그들 나름대로의 개혁을 하려는 종교적인 집단을 말한다.

(1) 재세례파⁶

Luther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 1520년부터 초자연적인 계시에 근거한 열광적-광신적 신앙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종교적 물결은 Thomas Münzer라는 사람에게로 거슬러 올라간

5. 앞책 31-21 쪽

6. Fast H., *Täufer*, in: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RGG³) VI, Tübingen 1957, 601-604 쪽

다. 또 이 열광적-광신적 신앙의 물결이 Huldrich Zwingli의 절대적 영향을 받고 있는 스위스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재세례파의 요람은 스위스의 Zürich에 있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Zwingli는 1519년부터 Erasmus와 Luther에게서 재발견된 종교개혁적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했다.⁷ 많은 추종자들이 Zwingli의 종교개혁을 열렬히 지지하였다. Zürich市議會도 1523년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Zwingli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523년 12월에 성례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할 때 Zwingli는 정치적인 고려에서 종교개혁운동을 포기해 버렸다. 그러자 그의 추종자들은 Zwingli를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Zwingli 없이 따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열렬한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신학에도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었다. 모두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했고, 자기들 나름대로 로마카톨릭 교회에 대하여 비판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주장은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① 국가와 국가교회(國敎)에 대한 불신을 가졌으며, ② 산상설교에 근거한 율법적인 도덕의 造成을 요구하였으며, ③ 정치적 지배자들로부터 받을 박해를 감수할 것을 다짐했고, ④ 내적인 빛에 관한 신비적 교훈을 강조하였으며 ⑤ 물세례가 아닌 성령세례를 요구하고 幼兒洗禮를 반대하였다.⁸

재세례파 사람들은 이런 주장들을 내세우면서 공산주의적인 생활과 환상적인 묵시문학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Zwingli에게서 배운 신앙의 복종의 문제를 가지고 열렬한 토론을 하였다. 인식된 진리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타협을 해도 되는가? 타협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그 다음에 제기된 물음은 통치자들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결단을 강요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토론은 그들이 주위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7. Heussi K., *Konpendium der Kirchengeschichte*, Tübingen 1976¹⁴, 77-78 쪽

8. Fast, *Täufer*, 603쪽

길을 걷는 일을 택하였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들은 국가와 타협하는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교회상을 가르쳤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론 뒤에는 무엇보다도 幼兒洗禮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幼兒洗禮인가, 成人洗禮인가 하는 문제는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세례는 신앙의 결단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결단이 결여되어 있는 유아세례는 비성서적이고, 교황을 추종하는 자들이라고 비난을 받았으며, 그러므로 유아세례는 기본악이었다. 여기에서 成人洗禮가 요구되었다. 재세례파의 이런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1524년 초에 벌써 Zürich 주위에 있는 교회에서는 유아세례 예식을 중지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자 1525년 1월에 Zürich 시의회는 유아세례와 성인세례에 대한 논란을 하지 말도록 경고하였으나 재세례파 형제들은 그들의 대변자인 Konrad Grebel, Felix Mantz 주위에 모여들었다. 여기서 Jorg Blauroch라는 사람이 Grebel에게서 세례를 받고, 또 Blauroch 자신은 다른 형제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 신앙의 세례(이른바 成人洗禮)가 재세례운동의 시작이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 Zürich 시의회는 성인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재세례파 형제들은 조직적으로 계획된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Melanchton은 1531년 Wittenberg 대학에서 그들을 감정한 후에 교수형에 찬성했고,⁹ Luther도 역시 그것에 동감을 표시했다. 그래서 Kursachsen에서 수많은 재세례파 사람들이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다.

재세례파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교수형에 처해진 것은 재세례운동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더 큰 원인은 그들의 묵시문학적인 '시온왕국건설'이라는 환상 때문이었는데 이것은 남부독일 Schwäbisch-Hall출신인 毛皮匠인 Melchior Hoffmann에 의해서 시작되었다.¹⁰ 그는 시온왕국건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9. Maurer W., *Melanchton*, in: RGG IV 838 쪽

10. Heussi, *Kirchengeschichte*, 328 쪽

불신자들을 멸망시키도록 칼을 주었다고 주장하여 폭력을 사용했던 것이다. 남부독일에서 꺾박이 심하게 되자 북부독일과 홀란드를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펴서 많은 추종자들을 얻은 재세례파는 중부독일 Münster로 왔으나 Hoffmann의 이 광신적-환상적 가르침 때문에 재세례파는 결국 종말적인 파국에 이르게 되었다.¹¹

재세례파의 신학은 3가지로 요약된다.¹² ① 성서주의, ② 그리스도를 따름(이웃사랑, 집총거부, 십자가를 짐), ③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령의 활동의 자리이다. 그러므로 교회교육을 강조하였다. 재세례파의 영향은 매우 컸다. '스위스 형제들'이라는 종파가 탄생했으며, 1529년부터 오스트리아에 Hutterer라는 종파가 생겼고, 1572년에 홀란드에서 생긴 Mennoniten교회는 스위스, 북부독일(Emden, Hamburg), 폴란드의 Danzig, Elbing까지 퍼져나갔다. 17세기에 와서 영국의 침례교회는 홀란드계의 Mennoniten교회의 영향으로 재세례파의 전통과 접촉하게 되었다.

(2) 신령주의자들¹³

재세례파는 일치된 신학과 교회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도 기록해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신령주의자들은 전혀 달랐다. 신령주의는 어디까지나 개인주의였다. 신령주의자들 가운데에는 작가들, 시사평론가, 역사가,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저술을 남겨서 많은 독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일치된 신학이 없었기 때문에 연속되어지는 통일된 사상발전이 있을 수 없었다. 신령주의자들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대립시키면서 외적인 것은 전혀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문자와 영을 대립시키고,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대립시키고, 역사적 예수와 하늘의 그리스도를 대립시키고,

11. 자세한 이야기는 Fast, *Der linke Flügel der Reformation*, 296 쪽 이하 참조

12. Fast, 앞책 149 쪽 이하

13. Richter E., *Spiritualismus*, in: RGG VI 254-255 쪽

신학과 내적인 경건성을 대립시켰다. 따라서 그들은 외적인(보이는) 교회설립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였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활동이 있는 곳에 신령주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럴 경우에 재세례파와 신령주의를 혼동하는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재세례파 사람들도 강력한 성령의 활동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신령주의는 영의 개념이 희랍적인 二元論으로 이해되는 곳에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¹⁴ 신령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영은 외적인 것, 가시적인 것의 부정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내면성이라고 이해되었다. 그러나 재세례파는 성령을 내면성 혹은 불가시적 원리가 아니고, 세상 안에 있는, 세상을 위해서 있는 교회의 생활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통일적인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신령주의의 사상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1) 복음적 신령주의: 영의 이해는 성서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¹⁶

2) 합리주의적 신령주의: 신학을 위한 이성을 강조하고, 이성을 성령의 현존의 자리로 보았다.¹⁶

3) 신비적 신령주의: 신비적 체험과 기적을 강조하였다.¹⁷

후에 복음적 신령주의에서 웨이커교와 17-18세기의 경건주의가 발전하였고, 합리적 신령주의는 계몽주의와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에서 환영을 받았고, 신비적 신령주의는 철학에 자극을 주어서 낭만주의적 관념철학으로 발전해 갔다. 이 신령주의는 재세례파와는 다르게 오랜 기간을 걸쳐 오면서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4. Richter, 앞글 254 쪽

15. Fast, *linke Flügel der Reformation*, 211 쪽 이하

16. Fast, 앞책 199 쪽 이하

17. Heussi, *Kirchengeschichte*, 329 쪽

(3) 광신자들¹⁸

광신자들이란 말은 Luther의 종교개혁 시대에 널리 사용된 말로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에 맞지 않는 모든 신앙노선이 그렇게 표현되었다. 광신자들은 신령주의자들과는 다르다. 오히려 Thomas Münzer나 Münster의 재세례파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계시신령주의 즉 성서 이외의 계시를 주장했다. Thomas Münzer는 꿈과 환상을 강조했고, 스위스의 Appenzell이라는 곳에 있는 광신주의자들은 자기들을 죄없는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르면서 성서를 포기해도 된다는 주장을 했다. Augustin Bader는 신학적인 것보다는 애국적인 면을 강조했고, Melchior Hoffmann의 제자들은 이적을 강조했다.¹⁹ 그들은 또 자기들에게 계시된 것을 血肉이 되게 한다는 이른바 이념의 가시적 실현에 대한 신앙을 주장하였다. 이런 사상이 Hoffmann의 영향으로 Münster에서 실현하려고 했던 '시온의 왕국'이라든가, Thomas Münzer에 의한 농민들을 통한 사회혁명(농민전쟁)으로 이끌어 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 믿었다.²⁰

광신자들은 신령주의로부터 계시에 대한 것을 배우고, 재세례파로부터는 가시적인 성령의 활동에 대한 지식을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광신자들은 재세례파나 신령주의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신령주의나 재세례파에서는 광신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혁명적인 것을 볼 수는 없었다. 신령주의는 조용하게 오랜기간 활동을 한데 반하여, 광신주의는 갑작스럽게 생겨서 과격하게 행동하다가 또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4) 反삼위일체론자²¹

反삼위일체론자들은 앞에서 말한 세 집단 가운데 어느 한 집단에

18. Lonning I., *Die Reformation und die Schwärmer*, Zürich 1979, 515 쪽 이하

19. Lonning, 앞책 520-521 쪽

20. Fast, *linke Flügel*, 270 쪽 이하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삼위일체 교리에 반대한 자들로서 어떤 집단을 형성하지 않았다. 반삼위일체론은 마리아 숭배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은 Michael Servet였는데,²² 1553년 10월 27일에 제네바에서 화형에 처해졌다. 그 후에 반삼위일체론은 홀란드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이상에서 종교개혁의 좌익으로 불리는 재세례파, 신령주의, 광신자들, 반삼위일체론에 대하여 개괄해 보았다. 종교개혁의 좌익 혹은 광신자들의 개념은 무엇보다도 그 용어 자체에서 밝혀지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성령의 활동을 규정하는 데서 들어나게 된다. 광신주의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광신주의는 재세례파에도 있었고 신령주의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전체를 광신자들과 부를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광신자들의 성령이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자.²³

1) 성령은 통제할 수 없는 영감의 원리로 이해되었다(Wolfgang Ublmann, Augustin Bader).

2) 내적인 순수성의 표식과 원인으로서의 영이다(Thomas Müntzer). 즉, 성령은 사람의 속을 밝혀주고 선택에 대한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모순되게 보이는 성서구절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구원을 이해하게 해준다.

3) 신령주의에 있어서 성령은 인도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육적인 것, 가시적인 것, 외적인 것에 대립해 있는 形而上學的 원리로 이해되었다. 순수한 내면성을 말하는데 있어서 신령주의자들은 신비주의자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4) 성서해석의 열쇠는 성령이라고 말한 Melchior Hoffmann은 세계종말에 대한 자기의 선포가 어떤 영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서의 객관적인 주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5) 성령의 오심은 구원의 前단계이고, 사회변혁이 구원의 단계

21. Fast, 앞책 361 쪽 이하; Heussi, *Kirchengeschichte*, 330-331 쪽

22. Fast, 앞책 363 쪽 이하

23. Fast, 앞책 IX 이하

라고 이해되었다(Münzer, Hoffmann). 이 점에서 Luther와 Münzer가 심하게 충돌했다.

6) 성령은 교회의 지도원리로서 이해되었다.²⁴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1523년에 Luther와 Zwingli는 교회 회원은 누구나 말할 자격이 있다고 말한 고전 14장에 근거해서 지방교회의 쏜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회중교회의 결정이 성령의 활동과 일치한다는 행 15:28의 말씀을 근거로 했던 것이다. 1523년 10월에 Zürich에서 성례전과 그림숭배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자 Zwingli는 그 문제를 시의회가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위임했다. 이때 Simon Stumpf라는 사람이 “시의회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다.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하나님의 영이 판단하신다”고 외치자 Zwingli의 옛날 추종자들은 교회안에 영의 활동이 있다고 믿게 됨으로써 영을 교회의 지도원리로 이해하였다.

7) 교회의 규칙에는 성령의 활동이 함께 한다. 특히 신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경우에 성령의 활동을 말했다.

8) 유아세례를 비난하면서 成人洗禮를 위한 신앙의 결단, 신앙 고백은 성령의 활동이다. 그러므로 젖먹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광신자들의 성령이해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이제 이러한 영이해에 대하여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4. 종교개혁자들의 성령이해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를 한마디로 ‘광신자들에게 저주가 있으라’로 요약할 수 있다. 종교개혁자들의 광신자들에 대한 비판의 출발점은 ‘복음의 구체적인 말씀없이 신앙이 없다’는 명제이다.²⁵

24. Flachsmeier H.S., *Ulrich Zwingli*. Politiker und Reformator, Basel 1960, 18 쪽 이하

25. Lonning, *die Reformation und die Schwärmer*, 517 쪽

광신자들에 대한 저주는 주로 재세례파에 대한 것이었다. 종교개혁의 신학적 중심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Augsburg 신앙고백 제 5항에서 확인된다: “재세례파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없이 인간이 자기의 준비와 노력, 생각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런 과격한 저주의 심판은 세심하게 묘사된 교의학적 입장의 이면이라 할 수 있다.²⁶ Augsburg 신앙고백에 근거해 있는 종교개혁 신학은 영과 신앙을 신령주의적으로 이해하는데 반대하고 있다.²⁷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교리의 결정적인 기준을 구체적인 말씀에 두었다. 그러므로 신앙과 신앙을 가지게 하는 영을 말씀에서 분리하는 자는 교회밖으로 신앙을 옮겨놓는 사람으로 간주하였다. 왜냐하면 영과 구체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혁명운동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하여 취해진 것이다. 영과 말씀의 한계는 필연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구체성은 복음의 내용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만일 신앙이 말씀없이 생긴다고 하면 신앙은 어떤 인간적인 사고의 가능성 안에서 발견될 것이다. 구체적인 말씀선포와 구체적인 성례전 행위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위에서 직접 유래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위가 믿는 사람 밖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죄의 용서, 義, 영생은 밖으로부터만, 구체적으로 받아드려질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영-말씀-신앙 이것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일치된 통일체로 이해되었다. 이 일치에서 신학적인 저주의 필연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듣는 설교의 말씀과 성례전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신앙을 가지게 하는 성령의 기능을 배제하고 그 자리에 인간의 정신적인 것을 대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²⁸ 이렇게 함으로써 광신자들의 신령주의적 성령이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교권제도적으로 구상된 로마전통의 성령이해

26. Bornkamm H., *Augsburger Bekenntnis*, in: RGG I, 733-736 쪽

27. Lonning, 앞책 513 쪽

28. Ebeling G., *Luther*, in: RGG IV, 502 쪽 이하

에 대결하는 포괄적인 한계가 설정되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는 설교, 세례, 성만찬 안에, 즉 복음의 구체적인 말씀과 영이 결합되어 있다.

종교개혁자들의 성령이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내적인 체험의 수단을 통해서도 아니고, 교직자의 전권을 통해서도 아니고, 다만 구체적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실현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된다. 그러므로 성령은 구체적인 말씀의 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두개의 다른 강조점을 볼 수 있다.

- 1) 영의 구체적인 말씀이 중심이다(구체성이 강조된다).
- 2) 영의 구체적인 말씀이 중심이다(말씀이 강조된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관계를 비교할 때 주로 영감이라는 말로 표현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을 어디까지나 과거표현의 의미에서만 사용되었다. 즉, 영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한다고 이해하였다. 다시 말하면, 현대적인 표현, 즉 지금 여기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또 마음속의 새로운 변화 등에 관한 표현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많은 카톨릭 신학자들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야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자문자답하고 있다.²⁹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신령주의와 재세례파 운동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종교개혁적인 성서원칙을 넘어선 성서주의, 과격한 광신자들에 대하여 신학적인 대결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긴장상태에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관계를 어떻게 보았는가?

종교개혁자들은 이 양자를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는 Luther가 바울신학을 꿰뚫어 보는 하나의 무기였다.³⁰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에서 성령은 본

29. Ganoczy A., *Wort und Geist in der katholischen Tradition*, Zürich 1978, 523 쪽

30. Lohse E., *Übersetzer und Ausleger der Bibel*, Schultz H.J.

질적으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당시의 과격한 광신자들과의 대결을 위해서 결정적인 해석의 원리가 주어졌으며 종합적인 신앙이해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스도의 영은 다만 그리스도이며, 성서의 중심이고,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영이다. 말씀과 영은 여기서 모순되지 않는다. 성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 내지 그리스도의 영을 계시하며, 반대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서의 말씀을 밝혀준다. 말씀과 영은 모순되지 않으며 상호적이다. 이것이 말씀과 영의 관계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견해이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과 성만찬의 관계는 어떠한가?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영은 중개의 직무를 가지고 있다. 떡과 포도주의 가시적인 형태는 승천하셔서 항상 자신을 희생으로 주시는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다. 물론 영의 활동이 성분변화의 방법으로 고갈되는 것은 아니다. 영의 활동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만찬의 말씀과 행위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행위임을 믿고 받아드리게 하는 일을 영의 활동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 밖에 말씀과 영의 관계는 교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다. 고전 12:4-11과 엡 4:11-13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은사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를 중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인간적인 것 사이를 중개한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고 올바른 신앙고백의 형성과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영의 활동이라고 이해하였다.

5. 결어

지금까지 우리는 종교개혁 당시의 다양한 성령이해를 살펴보았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령에 대한 다양한 이해는 항상 있었다.

(Hrsg): Luther. *Kontrovers*, Stuttgart/Berlin 1983, 110 쪽 이하

그러나 종교개혁시대처럼 성령의 이해를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투쟁을 벌인 때는 기독교 역사상 보기도 못한 일이었다. 성령의 이해가 기독교 신앙의 모든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좌익 광신자들'의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결국 광신주의적인 그릇된 신앙양태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폭력으로 혁명하겠다는 집단들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결과는 성령이해가 성서와 기독교론을 무시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철두철미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령이해를 통해서 '좌익 광신자들'의 그릇된 신앙을 극복하는데 공헌을 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있어서처럼 종교개혁자들에 있어서도 성령의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구체적인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似而非 信仰을 저지 내지 근절할 수 있는 길은 성서에 근거한 철저한 基督論 研究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